

경영저널



특집 부자 (富者)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16만3천명

COVER STORY 곽용환 고령군수

고령특집 '부자 지자체' 고령 조성 박차

Hot Issue 고령군, '낙동강 르네상스시대' 선도 지자체 우뚝

만나고 싶었습니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사회 마이핀(My-PIN)이용자 명암

정책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 치열

Economy 초저금리 시대 진입 속도

출동 현장속으로 영남권 주민숙원사업 '남부권신공항' 조성 탄력

메디컬 몸 속 찍는 사진기 CT & MRI

49th
2014 9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 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0길(옥산동)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18



- 07 **정책**
대구,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전국 꼴찌
- 08 **특집-부자(富者)**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16만3천명
- 10 **특집-부자(富者)**
대구 수성구 “부자 많다” 달서구도 전국에서 상위권
- 12 **이슈 앤 이슈**
대구·경북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 많다
- 14 **Cover Story**
곽용환 고령군수
“갈등과 대립보단 협력과 조정통해 위대한 대가야 새 역사 창조할터”
- 18 **고령 특집**
‘부자 지자체’ 고령 조성 박차
- 20 **고령 가볼만한 곳**
찬란했던 대가야 역사·문화유산 한 눈에
- 22 **고령 핫이슈**
고령군,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 선도 지자체 우뚝
- 24 **고령 특산물**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쟁력 전국 으뜸
- 26 **만나고 싶었습니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14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7th World Water Forum
Daegu & Gyeongbuk, Korea

기간_ 2015. 4. 12 ~ 17 (6일간)

장소_ 대구 EXCO,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Water for Our Future"

규모 국가정상급 포함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4만여 명

내용 포럼 - 4개 주요과정별(주제별·정치적·지역별·과학기술) 논의 및 시민포럼
EXPO & Fair - 물 관련 우수 정책, 제품, 기술 등 전시

세계물위원회(WWC)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매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

The World Water Forum is the world's largest meeting on water and is organized every three years by the World Council. The 7th World Water Foru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cure and implement concrete actions to build a water-secure future.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7th World Water Forum 2015





- 28 **Special Section**
이우환미술관 건립 찬반양론 팽배
- 30 **사회**
마이핀(My-PIN)이용자 명암
- 32 **기업탐방**
광고닷컴, 대구 대표 온라인 광고 전문기업 도약
- 34 **칭찬합시다**
군위군청 경제지원과 염동균 교통행정담당
- 36 **포커스 리딩**
세대간 갈등 해소... 국가 경쟁력 수직상승
- 38 **정책**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 치열
- 40 **사회**
대구·경북지역 공기업 및 시·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희비
- 42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마늘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양파는 증가
- 44 **Economy**
초저금리 시대 진입 속도
- 46 **청호(靑湖)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
- 48 **출동 현장속으로**
영남권 주민숙원사업 '남부권 신공항' 조성 탄력
- 52 **메디컬**
'몸 속 짙는 사진기' CT & MRI
- 54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49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서기대
취재	배은정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류영철
편집위원	백재호, 홍순대, 서용준 윤정현, 민경량
광고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6-8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산 053) 811-2820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 가 : 8,000원
예 금 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 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광고의 힘!

광고닷컴에서 느껴보세요.

광고닷컴의 변치않는 지향점은
'좋은 광고'와 '좋은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티브가 살아 숨 쉬는 좋은 광고를 위한 열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전문기업 광고닷컴이 하는 일



대구,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전국 꼴찌



경우 도시공원 추가 조성에 조속히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2011년 9.79㎡에 이어 2012년에도 9.8㎡에 머물렀다.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대구는 아울러 8개 시·군간 편차도 심해 수성구와 중구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채 한 평(3.3㎡)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달성군은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33.51㎡를 기록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규모가 가장 컸다.

도시지역에 공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대구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 그쳤다.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홈페이지 '내고장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기능 및 주제에 따라 크게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대표적 생활권공원이다. 역사·문화·체육공원 등은 주제공원에 속한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대구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고작 9.8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세종시와 비교해선 1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세종시의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69.2㎡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세종시와 함께 전남 37.41㎡, 충북 32.77㎡, 울산 31.18㎡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경북(27.83㎡)과 전북(27.79㎡), 경남(27.78㎡)도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비중이 높았다.

대구의 주요 경쟁도시인 부산과 인천도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각각 16.96㎡, 17.24㎡를 확보해 대구보다 배 가량 규모가 컸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새 지속되고 있어 대구의

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휴양 및 정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서다. 이는 관련법 상 도시공원 조성 목적과도 상통한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도시공원면적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 1억7천666만7천871㎡, 서울 1억4천70만607㎡, 인천 4천965만2천620㎡에 달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천465만5천655㎡, 7천511만4천587㎡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도시공원 면적은 10억476만1천631㎡로 집계됐다.

백재호 편집위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고자산가 16만3천명

부자(富者).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 중 고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s)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뜻한다. 원화로 환산한다면 대략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고자산가 규모는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에선 추산하고 있다. 이런 고자산가는 대략 전체 국민의 0.32%대에 불과하지만 국내 가계부문 총 금융자산의 14.8%를 차지할 만큼 부(富)의 편중이 심화된 상황이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개인 16만3천명 추산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흥미로운 조사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 부자 규모와 자산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투자성향 및 라이프 스타일을 망라한 '2013년 한국부자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는 16만3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의 14만2천명에 비해 14.8%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증가폭(8.9%)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 중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8%에서 0.32%로 늘어났다. 이들 한국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66조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 22억4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국민의 상위 0.32%가 가계부문 총 금융자산의 14.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자는 지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들어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총자산 비중 클수록 부동산 비중 높아

한국부자가 보유한 자산 형태별로는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올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부동산, 금융자산, 예술품, 회원권 등 자산형태별로 우리나라 고자산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부자들의 평균 자산은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유 자산은 부동산이 55.4%로 과반을 웃돌았으며, 이어 금융자산 38%, 예술품, 회원권 등 기타자산이 6.6%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산 구성비는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측은 전했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1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은 무려 72.5%에 달했다. 다만 부동산 선호도는 지역 간 차이를 보인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자들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낮은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자의 대략 39%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평균 6억2천만원에 달했다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들 부자들이 소유한 주택,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평균 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측은 우리나라 부자들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지방에 비해 서울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임대보증금 규모도 서울 부자들이 지방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부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임대를 선호한 가운데 60대 이상의 92%, 50대의 89%, 40대 이하의 87%가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 축적 방편으로 부동산 투자 선호

현대 사회 부자들의 자산형성은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산업화를 통한 현대적인 기업 경제로

발전하기 전만하더라도 정치적 권력이 개인의 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토지'가 그 매개체가 됐다는 것이다. 서양에 비해 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우리나라 역시 '토지'는 부자의 자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 축적을 위한 토지의 역할이 생산적 가치에서 자본적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 범위도 주택, 건물 등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측은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법 중 부동산 투자는 무려 32.2%에 달했다. 부모의 증여와 상속도 20.2%를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자들의 경우 자신을 부자로 인식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모으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측이 우리나라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자의 72%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총자산 50억~10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의 경우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작 35%선에 머물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부자의 62.1%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의 고자산가"라면서 "부자들의 자산 축적 방법은 주로 부동산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후 자식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부의 세대 간 이동 또한 활발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배은정 기자



대구 수성구 “부자 많다”

달서구도 전국에서 상위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많이 모여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부자수는 7만8천400명을 기록, 전국 부자의 48%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구(區)지역 가운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대구 수성구다.



수성구, 부자 많이 모여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부자는 2천 900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구(區)지역 중 부자가 가장 많이 모여사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이상을 보유한 고자산가를 지칭한다.

이번 조사결과, 대구지역 전체 부자 수는 7천200명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볼때 수성구의 부자 수는 대구 전체의 40%를 차

지하는 것으로, 대구 부자 10명 중 4명이 수성구에 거주한다는 뜻이다. 전국의 구(區)지역 가운데 수성구 다음으로 부자가 많은 곳은 해운대로 2천600명으로 집계됐다.

구(區)지역 중 세 번째로 부자가 많은 곳은 대구 달서구로 1천 900명에 달했다. 전국 구(區)지역 중 부자가 많이 거주하는 랭킹 1, 3위를 대구가 차지한 셈이다. 대구지역 부자는 수성구와 달서구에 이어 북구 900명, 동구 500명 순으로 많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대구 수성구와 달성구는 부자가 많이 모여 사는 대표적 '부자동네'라면서 "대구에는 인구 대비 부자수 규모에서도 전국 3대 도시에 꼽힐 정도로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부자 가장 많아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의 부자 수는 7만8천4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전국 부자 수의 48%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3만900명으로 2위를, 3위는 부산(1만2천500명)이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부자 수 비율은 서울이 0.77%로 1위를, 2위와 3위는 부산(0.35%)과 대구(0.29%)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부자 수는 연평균 14.9%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서울지역 증가율은 13.7%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이 기간 울산은 연평균 19.6%씩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부자 수는 지난 2007년 8만5천명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한 2008년엔 8만4천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9년 10만8천명에 이어 2010년 13만명, 2011년 14만2천명, 2012년 16만3천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007년 182조원에서 2008년 179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09년 232조원, 2010년 288조원, 2011년 318조원, 2012년 366조원으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부자 수는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대구가 7천200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5천300명, 인천 4천600명, 경북·대전 각 3천300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부자가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로 1천300명에 그쳤다.

강남 3구 서울 부자 37.6% 차지

우리나라 부자가 가장 많이 모여사는 수도권을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선 강남3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 부자의 37.6%를 차지한 것이다.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만2천5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9천400명, 송파구 7천500명, 양천구 4천400명, 영등포구·양천구 각 3천300명, 광진구·동작구 각 3천100명 순

이었다. 반면 서울지역에선 마포구가 2천600명으로 부자가 가장 적은 구(區)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부자가 많은 경기도는 성남(5천900명), 용인(4천100명), 고양(3천800명), 부천(2천500명), 수원(2천300명), 안양(1천700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군포(800명)와 안산·광명(각 700명) 등은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대구지역 금융기관 PB센터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부자들의 금융투자 패턴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예금 규모 5억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대구·경북의 PB센터 이용 전체 고객 중 60~70대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금융가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전통 부자들은 주로 연 3~4%대 이율의 채권 투자 비율이 높으며, 상속·증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로 정기예금이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호하는 등 자산을 늘리기 보다는 지키는 방향으로 재테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대구·경북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 많다



대구·경북에서 운행 중인 119 구급차 중 자동심폐소생기(CTR)를 갖춘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돼 있는 119구급차 1천294대 중 95%인 1천235대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와 경북에서 운행 중인 119 구급차 중 자동심폐소생기를 구비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17개 광역지자체 별로 자동심폐소생기를 구비한 119구급차량은 경기도(32대),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등 7개 지자체에 그쳤다.

자동심폐소생기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기계적 장비를 이용해 일정하게 작동시켜 구급인력이 응급상황에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119 구급차량에 자동심폐소생기 설치률이 낮은 것은 장비 보유기준을 의무적 설치가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묶어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심폐소생기 해당 가격이 2천500만원을 호가해 소방방재청 고시에는 119 구급차량의 해당 장비 보유기준을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구급인력은 법정기준인 2만7천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1만6천여명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심폐소생기 설치 필요성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역시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 실내에 심폐소생 외 다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구급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심폐소생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자동심폐소생기 등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북은 구급차 및 소방차량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히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출동 중 고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경북지역에서 소방차 출동 중 고장을 일으킨 건수는 29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고장률이 높은 것이다. 고장을 일으킨 차량을 살펴보면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재집압시 펌프차 11건, 긴급 상황 시 투입되는 구조차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소방차량이 고장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차량 노후화’가 주로 지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연말기준으로 전국의 주력 소방차 5천682대 중 무려 1천202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 노후화율은 21.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올해 소방차 교체 등 보강계획은 고작 447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노후소방차 교체율은 29.4%에 그치는 실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출동 중 고장을 일으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소방차를 전면 교체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차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편집위원



제1회
예천 세계 활축제
Yecheon World Archery Festival, 2014



2014. 10.15(수) ▶ 10.19(일) / 5일간
예천 **한천체육공원** 및 **남산공원** 일원



주최 :  예천군,  매일신문사

후원 : 경상북도, 대한궁도협회, 대한양궁협회, 농협예천군지부

| 인터뷰 | **곽용환** 고령군수

Profile

- 1958년 경북 고령
- 고령농업고
- 영남대 행정대학원 자치행정과 석사
-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의장
- 고령군 생활체육회장
- 민선 5기 고령군수
- 전국지역신문협회 행정대상
- 사회책임경영 리더상
- 근정포장
- 내무부장관 표창



“갈등과 대립보단 협력과 조정통해 위대한 대가야 새 역사 창조할 터”

민선 6기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재선의 단체장 곽용환 고령군수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아울러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의 힘을 토대로 군민이 행복한 희망찬 고령건설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군정 목표인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실현이라는 대원칙을 통해서다.

곽 군수는 “위대한 대가야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민선 6기 고령호(號)’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고령군의 희망찬 백년을 여는 역사적 순간을 민선 6기 임기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Q 민선 5기를 평가 한다면?

A 민선 5기는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이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심 없이 달려온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 준설 골재 처리법을 개선하고 계약원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총 10개 분야에 걸쳐 117억 원 상당의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총 예산대비 고령군의 지방부채 규모는 1.2%에 불과해 오는 2016년 연말이면 부채를 완전 상환할 수 있는 사실상 ‘부채 제로(ZERO)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민 소통 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 4천680건을 처리한 것은 물론 교육발전기금 140억원을 조성하고 연 2회 이상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또한 활발히 전개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업체 192개 유치 성과는 물론 일자리 1만1천370개를 창출했으며,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662세대를 건립하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민원처리 단축률 경북도내 1위·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 2013년 자치단체 경쟁력 부문 전국 9위(경북도내 1위)·지방재정 균형집행평가 우수기관 등 전국 내지 경북단위 주요 평가에서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거둔 성과와 노력이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붓고,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했다면 이제 새로 시작된

민선 6기 4년 동안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하고 문화 융성 시대를 선도해냄으로써 고령군의 희망찬 백년을 여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민선 6기 문화·관광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선?

A 21세기는 문화 융성의 시대입니다. 문화수준은 곧 지자체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고령은 520년의 찬란했던 대가야의 도읍지로 악성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창제해 12곡을 만든 한국 음악의 발상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유산을 토대로 대가야음 명칭을 변경하고 대가야종묘를 건립하는 등 대가야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악성 우륵 현창사업 추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韓流)’의 원조인 ‘가야류(伽耶流)’를 선포하는 등 문화융성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에 대해선 오는 2017년까지 본 목록 등재작업을 최종 완료해 대가야의 가치를 세계 각국에 알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군 발전의 근간이 되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선 문화누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사계절관광콘텐츠 개발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Q 민선 6기 경제 활성화 방안은?

A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군민 모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령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소득과 고령 인구를 각각 4만달러, 4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 '건강한 고령 경제 4040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동고령을 비롯한 다산 월성·송곡일반산단 조성을 통해 산업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이뤄내 창조 경제 도시 고령 육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도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3천개를 육성해 뿌리가 튼튼한 '고령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Q 군민이 행복한 '복지 고령' 조성책은?

A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여성, 아동, 어르신 등 연령대를 초월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감동복지를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우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군민 눈높이에 맞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 100세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약자를 보듬는 복지정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가가호호를 찾아가는 '복지고령' 조성을 위해 대가야희망플러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간병도우미는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방문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정책발굴에도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여성정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출산·보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Q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역점 사업을 소개한다면?

A 농가 소득 전국 1위 지자체 고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농정정책 추진을 통해서입니다. 시설하우스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팜사업을 필두로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한발 앞선 농업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건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시설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자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



춘 선진 농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전문화, 규모화, 정보화 기반의 스마트 창조농업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땅심 회복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업전문경영인 양성, 농산물 유통망 선진화, 고령한우 명품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고령지역의 역대 농가수만 860가구를 헤아리며, 강소농가와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또한 각각 350가구, 710가구에 달합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 정비에 이어 행복누리촌 조성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물론 축산환경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고령군의 농축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Q 명품 지자체 고령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선?

A 전국을 2시간 생활권에 둘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남부 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도 26·33호선에 대해선 조속히 완공하고 국지도 67호선(운수-우곡간)·지방도 905호선(성산-다산간) 4차로 확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읍지역을 대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다산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사람 중심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는 물론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살기좋은 미래지향적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개진·우곡지역에 대해선 배수장을 증



설하고 지방하천 제방보강사업에 나서는 등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 행정 실현을 위해선

A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이른바 '섬김 및 신뢰의 군정'을 실현해냄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IT 활용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의 손을 맞잡는 현장 행정과 주민 체감형 규제 개혁을 통해 군민들의 삶을 한층 운택하게 만들겠습니다. 군민 대상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군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큰 뜻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영광을 안고 민선 6기 고령군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군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그리고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의 힘을 토대로 군정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명품 지자체 고령' 건설을 위해 주민들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대한 대가야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 '민선 6기 고령호(號)'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군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고령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쏟아내는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서기대 편집장

‘부자 지자체’ 고령 조성 박차

고령군이 민선 6기 군정목표인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차질없는 6대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서다. 고령군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은 △건강한 고령경제 구축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 △스마트 창조 농업 육성 △대가야 문화융성 △맞춤형 도시개발 추진 △투명한 명품행정 완성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 발전 해법으로 제시한 6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만 52개 프로젝트에 달한다. 고령군의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경제·관광·농업분야 핵심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및 규제 개혁 노력 등 고령군의 관련 행보를 짚어본다.



‘4040프로젝트’ 등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고령군의 움직임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광용환 군수를 비롯한 황옥성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보고회’를 최근 가진데 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민선 6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다루는 한편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자리로 받아들여진다. 고령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선 수시로 점검 분석하

고 주민과 약속한 6대 공약사업을 완벽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령군에 따르면 민선 6기 6대 공약사업 중 경제분야 핵심사업은 ‘4040프로젝트’로 압축된다. 인구 4만명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민소득 4만달러를 실현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령군은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3천개 창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고령 경제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산동권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뿌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

해 신(新)낙동강 시대를 본격 열기 위한 촉매제로 삼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낙동강을 따라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MTB도로 조성 등을 통한 낙동강 레저스포츠 기반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산동권역 발전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농업분야에도 혁신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창조농업 실현을 통해 부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고령군은 이를 위해 스마트 팜 조성에 나서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갖추는 동시에 산림자원 개발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

대가야 문화유산 기반의 관광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대가야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고령군은 이를 위해 기존의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변경하고 대가야관문과 종묘 건립에 나서는 등 대가야정체성 확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고령읍 명칭변경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고령읍의 '고령'이라는 이미지가 나이가 많다는 뜻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고령읍의 명칭을 '대가야읍'으로 변경하겠다는 게 뼈대를 이룬다. 고령군은 이에 따라 최근 대가야읍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대가야체험축제 이전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황옥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황 부군수 등은 지난 8월 초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윤재옥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을 만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 등을 방문해 대가야국 종묘건립, 지산동고분군 및 주산성 정비,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조기등재, 대가야 6차 산업화형 에코빌리지(eco-village)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강도높게 요청했다.

대가야국종묘 건립사업은 대가야도읍지인 고령이 대가야지역 5개 시·도 및 15개 시·군의 구심체 역할을 맡고 대가야정체성을 조기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령읍 지산리 5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건립한다는 목표다. 고령지산동 고분군 및 주산성 정비사업은 오



는 2018년까지 고분 704기 중 300기를 정비하고 주산성내 추정건물지 및 성벽 부분 발굴은 물론 지속적 정비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조기 등재사업은 오는 2017년 본 등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가치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중 하나인 대가야 6차 산업화형 에코빌리지(eco-village)조성사업의 경우 산림 녹화기념숲을 비롯한 금산, 낙동강 일원에 대가야문화와 농촌 및 낙동강문화를 연계해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체류형 및 수익형 관광자원시설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제 개혁에도 역점

지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위원회 활동에 나서면서부터다.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에는 현재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0일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광고물 표시방법 폐지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 측은 앞으로 서민 생활 불편사항은 물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타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규제를 타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장기적 안목과 종합적 사고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등 공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은정 기자

찬란했던 대가야 역사·문화유산 한 눈에...



고령군에는 찬란했던 대가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지난 연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지산리고분군을 비롯해 대가야왕릉전시관, 대가야박물관 등 520년 대가야 도읍지 고령군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가야고분군

대가야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선 지산리고분군을 빠트려선 안된다. 대가천(大伽川)과 안림천(安林川)이 합류하는 고령읍 서쪽 구릉에 위치한 지산리고분군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고분군 수백기가 들어서 있는 가야국 최대 고분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릉의 북쪽 산 정상부에는 주산성(主山城)이 들어서 있고, 구릉 동쪽 기슭에는 왕궁지(王宮址)가 자리잡고 있는 등 대가야 왕릉이 들어서 있는 핵심 고분군이다.

이 중 지산리44호분은 주산 구릉의 맨 꼭대기에 열 지어 늘어선 5기의 대형분 중에서 남쪽으로 100m정도 떨어진 경사면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77년 경북대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이 고분은 지름 27m, 높이 6m 규모로, 고분 안에는 3기의 대형 돌방과 이 돌방을 둘러싸듯이 배치돼 축조된 32기의 소형 순장돌덧널이 위용을 자랑한다. 고분의 입지, 규모와 구조, 출토유물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최근까지 발굴된 가야고분 중 최고의 위계(位階)를 가진 왕릉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산리45호분은 44호분에서 산 위쪽으로 60m 정도 떨어진 능선 급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지름 22~23.5m, 높이 2.85m 규모로, 중앙부에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돌방 2기가

나란히 들어서 있고, 그 주위에 11기의 돌덧널을 원을 그리듯이 돌아가면서 배치한 여러덧널 무덤 형식을 띤다. 대가야 순장 풍습도 엿볼 수 있는데, 고분에는 무덤 주인공 이외에 12명 이상이 순장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도읍이었던 고령군 일대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유물과 역사·문화 유산을 전시, 소개하고 있다. '대가야 여명', '대가야 성립', '대가야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사(史)' 등 고령지역 역사를 주제별로 관람할 수 있다. 연간 1~2차례 특정 주제로 기획 특별전도 갖고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고분군 제44호분의 내부를 원래의 모습대로 재현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생생하게 대가야인(人)의 생활과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대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학술연구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변의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한 문화재와 연계해 문화유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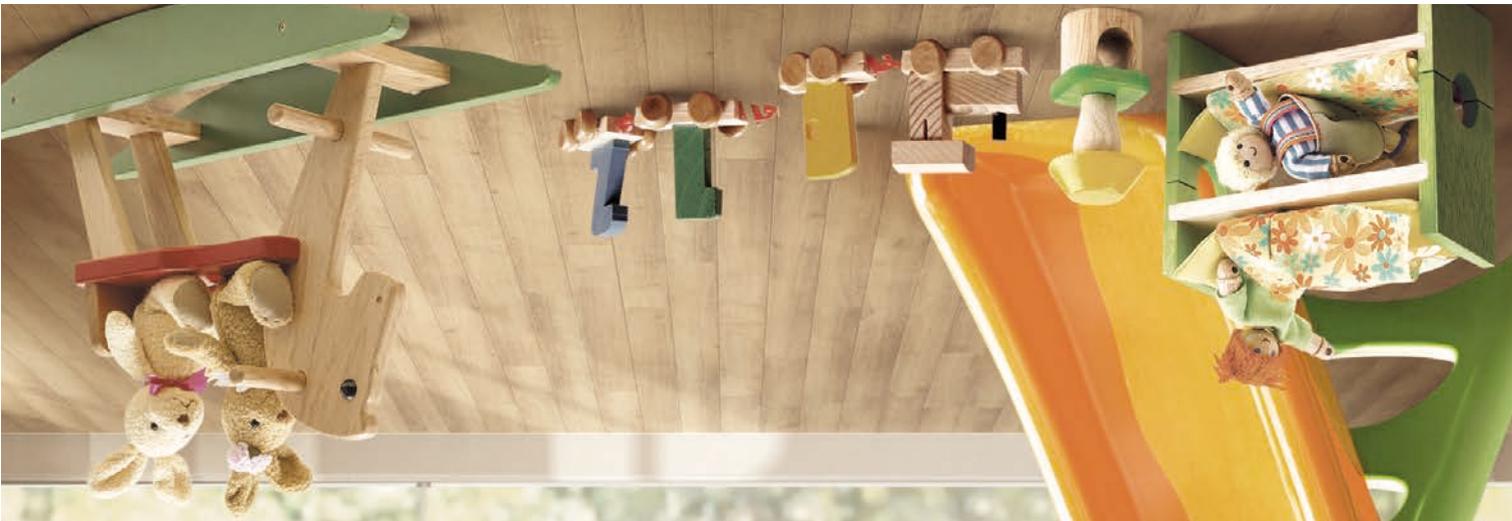
관람객들은 실물크기로 만들어진 모형 44호분 속에 직접 들어가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모습, 꺼묻거리의 종류와 성격 등을 엿볼 수 있는 등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 순장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박물관이자 종합전시관 성격을 지닌다.

우륵박물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 수집해 전시하고 있다. 방문객들에게 우륵과 가야금의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륵과 가야금'을 주제로 테마박물관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야금공방을 마련해 체험 학습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 대지 9천98㎡, 건축면적 965㎡ 규모로 1층엔 전시실, 2층엔 악기고 등이 들어서 있다.

배은정 기자



우리집 바닥이
우리집 천장이 된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밤낮없이 쿵쿵거리며 뛰는 우리 아이, '아이들이 다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밤 늦은 시간에도 소음을 견뎌야 하는 아래층 이웃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고령군, '낙동강 르네상스시대' 선도 지자체 우뚝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도 부푼 꿈



고령군이 지역 내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활용한 '낙동강 르네상스시대' 선도 지자체로 조명받고 있다. 노강서원 체험길 조성 프로젝트 등 고령-성주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낙동강레포츠헬벨리·개경포신나루·낙동강역사너울길·팔만대장경이운순례길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다.

고령군은 이와 함께 가야국 악성 우륵이 만든 가야금 세계화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명품 문화도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낙동강 르네상스시대' 중심 지자체 부상

고령군은 우선 민선 5기에 이어 6기들어 낙동강변 55km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레저관광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옛 나루터를 복원 정비하고 낙동강 습지자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동시에 사계절 체험형 레저관광벨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고령군에 따르면 국비 16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30억8천500만원을 투입, 지난 2012년 착수한 낙동강역사너울길조성사업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 사업은 8월 현재 탐방로 4km 구간을 구축한 상태다.

개진면 개경포기념공원에서부터 우곡면 부례지구까지 낙동강

변 4.2km 구간에 조성되며, 습지 등 생태 탐방이 가능한 여가 및 체육공간으로 단장된다고 고령군은 밝혔다. 탐방로를 비롯한 쉼터, 경관조망시설, 강변데크로드 등을 조성, 관광객을 맞는다.

낙동강변 옛 나루터 복원정비에 주안점을 둔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개진면 오사리에 위치한 개경포 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착공,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낙동강변에 옛 나루터를 복원, 문화용성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강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팔만대장경 이운 조형물을 비롯한 주차촌 설치의 이 사업의 핵심이다.

낙동강변 레저스포츠체험밸리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곡면 예곡리 부레지구 일원에 3만6천995㎡ 규모로 조성되는 낙동강 레저스포츠체험밸리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변문화관광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업비 76억7천만원을 들여 2016년 완공된다. 산악스포츠(MTB)코스를 마련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이크텔 등 관련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낙동강 산악자원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사계절 레저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고령군은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의 낙동강 개발 프로젝트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성주군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추진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비롯한 낙동철현 낭만공원, 노강서원체험길 조성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가야금 세계화 적극 추진

고령군은 아울러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악기인 가야금 세계화 작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악성 우륵이 만든 전통악기 가야금의 탄생 본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군은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바이올린 제작도시인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오는 11월 문화·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동·서양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크레모나시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밀라노 인근의 롬바디아 평원에 자리잡은 인구 7만5천명 규모의 소도시다. 세계적 바이올린 제작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탄생지로 유명하다. 이에 앞서 고령군은 경북도와 함께 지난 6월 말 문화교류 협력실무단을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에 파견, 고령군수 친서를 전달한 데 이어 가야금연주단 및 크레모나 현악기 현지 연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가졌다.

크레모나시도 이에 화답해 지난 8월 한-이탈리아 교류협력 촉진 의사를 담은 공문을 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를 거쳐 고령군에 전달했다.

고령군 등에 따르면 지안루카 갈림 베르티 크레모나시장은 이 공문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메카인 크레모나시와 동양을 대표하는 가야금 고장인 고령군과의 문화교류에 기반을 둔 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사업 확대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문에는 아울러 크레모나시의 강점인 바이올린 등 악기생산 뿐만 아니라 식품, 관광자원과 함께 한국의 ICT 기술력을 접목해 관련 자원의 디지털화에 양 도시가 공동으로 나서자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교류에 이어 경제통상 기술분야에 걸쳐 협력사업을 확대하길 바란다는 뜻을 고령군에 알려온 것이다.

고령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양 도시의 MOU가 오는 11월 체결될 경우 동양의 가야금과 서양의 바이올린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창조는 물론 양도시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향후 양 도시간 문화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악성 우륵이 제작한 가야금 세계화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쟁력 전국 으뜸

고령군의 농·축·특산물 경쟁력은 전국 으뜸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법으로 출하되는 수박과 딸기는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낙동강 주변의 사질양토에서 재배되는 감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고령군을 대표하는 '고령옥미'는 청와대에 납품될 정도로 국내 대표 브랜드쌀로 평가된다.



고령옥미 '경북 6대 우수 브랜드쌀' 등극

고령옥미는 520년 대가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령군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다. 올해 경북도가 선정한 경북 6대 우수 브랜드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북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이라는 뜻이다. 고령옥미는 지난 2002년 덕곡면 일대에서 재배된 게 그 시발점이다. 그해 26ha 규모로 재배된 고령옥미는 미질과 식감이 뛰어난다는 소비자 평판을 토대로 전량 출하하는 기업을 토해냈다. 고령옥미는 이어 지난 2007년부터는 밥맛이 뛰어난 삼광벼로 재배품종을 단일화하고 타품종 혼종 수매를 방지하기 위해 DNA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명품 브랜드 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8년 경북도 3대브랜드 쌀', '경북도 무농약쌀 품평대회 장려상', '2009년 경북도 최우수 브랜드쌀' 수상은 물론 전국 50대 브랜드쌀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2010년엔 청와대에 납품되는 등 명품 브랜드쌀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옥미는 올해 844농가에서 614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이 중 우렁이농법 등을 이용한 무농약재배면적은 82.4ha에 달한다. 고령군은 친환경 고령옥미 생산을 위해 무농약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브랜드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농업인 대상의 재배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고품질 쌀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다는 복안이다.



감자 주산지로도 유명세

고령군은 전국적 감자 주산지로도 명성이 높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고령개진감자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고령감자는 낙동강변의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재배돼 색깔이 유난히 희고 녹말이 많아 품질이 우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주로 4~6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으며, 이 중 4월에 생산되는 감자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수확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지리적 표시 제93호에 등록된 고령감자는 연간 9천300t 가량을 시중에 출하하고 있다. 감자재배농가는 638가구, 재배면적은 346ha에 각각 달한다고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측은 전했다.



딸기·수박도 최고 품질 명성 자자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딸기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매년 12월에서 4월 사이에 시중에 출하되고 있다. 고령딸기는 꿀벌을 이용해 자연 수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먹거리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미용은 물론 혈중콜레스테롤을 떨어트리는데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 등에 납품되고 있는 고령딸기는 355농가에서 156ha 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만 5천616t을 자랑한다. 고령수박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낙동강변 사질양토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령수박은 과육질이 좋고 당도가 뛰어나 '명품 수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일본에 50t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2003년 우곡그린수박으로 상표등록을 받았다. 올해 고령에서 생산된 수박은 2만1천262t, 재배면적과 생산농가는 각각 405ha, 510농가로 집계된다.



배은정 기자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한국관광 100선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문경관광지 3위 선정! 문경새재



- 과거길, 여행길 등 우리나라 옛길 유산을 한눈에 보는 **옛길박물관**
- 자녀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 **자연생태공원**
- 다양한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어 볼거리가 풍부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자연을 만끽 호흡할 수 있는 **맨발 황토길**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도립공원내 T.054-550-6414



눈이 먼저 감탄하는 문경팔경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진남교반,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아름다운 용주/쌍봉/선유동/새재/운암계곡, 봉암사 백운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침담



지루할 틈이 없는 체험여행

국내 최초 철루자전거, 문경관광시계탑, 문경활공랜드, 사계절별에 등 레저코스, 예술혼을 찾아보는 도자기전시장, 활력을 주는 온천관광지어헛



유유한 세월을 담은 전통문화

봉암사 극락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김용사 동승 등 다양한 국가문화재, 고모산성 등의 유적지, 석탄산업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문경석탄박물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지역축제

전국 으뜸 문경사과축제, 예술혼을 담은 문경신동차밭축제, 세계 최고품질 문경오미자축제, 옛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는 문경새재옛길달빛사랑여행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현장에서 문제 발견하고 현장에서 해결책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펼칠 것”

배진석(40)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의 목표는 확고하다. 현장을 누비는 현실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제10대 경북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화려한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 경북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배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답 또한 현장에서 찾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지역을 대변해 일하는 최적임자가 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인적 쇄신책으로 개혁 공천에 나서 총선 선전의 발판을 마련한 분이다. 아울러 국회 의원 시절 북한인권 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토해낸 관련분야 선구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과 북한 인권관련 활동 과정을 두루 지켜보면서 받은바 감명이 매우 컸다. 김 전 도지사과 인연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기도 정책을 다루면서 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엔 경기도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근거리에서 김 전 도지사를 모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했다. 김 전 도지사와

Q 정계에 발을 언제 내딛었는가?

A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2003년이다. 인턴 비서 신분으로 강삼재 전 국회의원 보좌진에 합류한 게 시발점이다. 이후 송영선 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30대 절반 가량을 국회에서 보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그 분(김문수 전 도지사)을 처음 뵈는 것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였다. 김 전 도지사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 속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일한 것은 대략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이다.

Q 최연소 도의원 당선 비결은?

A 경주 성건동에서 태어났다. 계림초교와 신라중, 경주고를 거쳐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경주시 제1선거구(황성·중부·성건동·현곡면)에서 당선됐다. 당시 나이로 만 40세였다. 제10대 경북도의원 중 최연소다.

지난 4월 공천신청을 낼 때만하더라도 만 39세였다. 6·4지방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 40대가 된 것이다.(하하)

당선의 영광을 안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선거구 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여건이 좋은 방향으로 전개됐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을 뽑아야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Q 의정 활동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A 제10대 경북도의회에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는 동시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늘 현장에서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정치를 처음 가르쳐준 국회의원 모두가 현장을 강조했고, 김문수 전 도지사 역시 이른바 '현장 맨'이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해답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은 이 처럼 중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 현장은 책상이 아닌 지역구, 넓게는 경북도 전역이다.

Q 경북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가?

A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각자 다른 길을 걷은 게 아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도울 점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른 길을 찾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아울러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초선이 무려 33명에 달한다. 한결같이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선배 의원들과 협력해 도의회 위상제고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의회 기능과 역할, 권한을 되찾는 게 위상제고의 핵심이다.

다만 지금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인 것 같다. 그 고통은 일을 잘 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해야하고, 많은 분을 찾아 봐야하기 때문이다.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에 신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북도 예산에서부터 각종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Q 경북도 현안 과제에 대해선?

A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이는 지역구인 경주 뿐만아니라 경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최대 현안 과제이자 숙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본다. 산업간 융복합은 경북도 또한 여러 여건상 최적합지로 판단된다.

1차산업인 농업과 3차 관광산업이 융복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 바로 경북이다.

경북은 또 관광산업과 연계한 의료산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입지적 장점도 뛰어나다. 여기에는 2차산업과 한류 기반의 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한다면 미래 먹거리리를 충분히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를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Q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A 정치인은 분명 권력이지가 있어야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지에 앞서 명분이 있어야한다. 명분이 있는 권력이지에는 지지자도 있고, 실현 가능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반해 명분없는 권력이지는 불행의 지름길로 빠져들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그 명분을 국민들에게 찾아야 하고, 광역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찾는 게 마땅하다. 그 명분은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고 자신을 알리기 보다는 주민들이 만들어준 그릇에 물을 채우고, 그렇게 그릇에 담겨진 시원한 물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릇이 안되는데 물을 붓기만 하면 넘쳐 옷을 버리고, 그릇도 깨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잘 해결해낸다면 그 그릇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릇에 물을 채우기 위해선 보다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 그 그릇을 주민들과 함께 채워 나갈 생각이다. 지역구인 경주에가면 의원이란 호칭이 어색할 때가 있다. 그냥 '배군으로 불러주십사' 어르신들께 말씀드린다. '배군, 이리 와서 이 일 좀 잘 살펴보게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경북도정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잘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지역을 대변해 일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글 | 서기대 편집장
사진 | 김원현 기자

이우환 미술관 건립 찬반양론 팽배

이우환 미술관(이우환과 그 친구들)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팽배하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 움직임은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지역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 바로 이우환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 6·4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운동과정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했다. 지역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새누리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이우환미술관 건립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줄 것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하는 등 민선 6기 추진해야할 대구시 문화예술분야 핵심 사업으로 삼은 때문이다.



대구시, 원점에서 재검토 입장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오른 것은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이 사업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다. 권 시장의 발언은 지역사회 안팎에 김범일 전 시장이 추진한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이에 권 시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즉각적인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권 시장의 이 같은 진화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한 찬반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월 초 권 시장이 일본을 방문해 이우환 화백을 만나고 돌아온 뒤 기자회견을 갖자, ‘지어야한다 Vs 짓지말아야한다’로 나뉜 찬반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권 시장은 지난 8월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화백을 만나 미술관 건립배경과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미술관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 화백에게 미술관건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줄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이번에 일본에서 이 화백을 만난 것은 미술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듣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역 사회 안팎에선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화백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었다. 이 화백의 입장을 확인한 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중도포기할지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화백은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화백이 미술관 건립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일고 있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과 관련, 이 화백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작품 기증 규모, 참여 작가수 등 이 화백의 역할이 매우 큰 이유에서다.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은 김범일 전 대구시장 임기 중 수면위에 올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랜드마크 확보를 위해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에 이우환미술관 건립에 본격 뛰어들었다.

대구시는 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 오픈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관련사업 추진과 관련된 최종 결정권을 후임 시장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이 문제는 민선 6기 들어 다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된 상태다.

지역 사회 찬반양론 교차

이우환미술관 건립사업의 찬반양론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 우선 찬성 쪽은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따라 대구 예술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낙관론을 펴고 있다.

여기에도 이 화백이 그린 작품을 보기위해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의 경우 연중 구름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 등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대구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작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술관을 짓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 노력을 중단해야한다는 견해로 비쳐진다. 게다가 일부 미술애호가를 위한 전시시설에 그치는 등 관광객 유치 효과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이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분야 우선순위로 지난 2011년 개관한 대구미술관을 정상화 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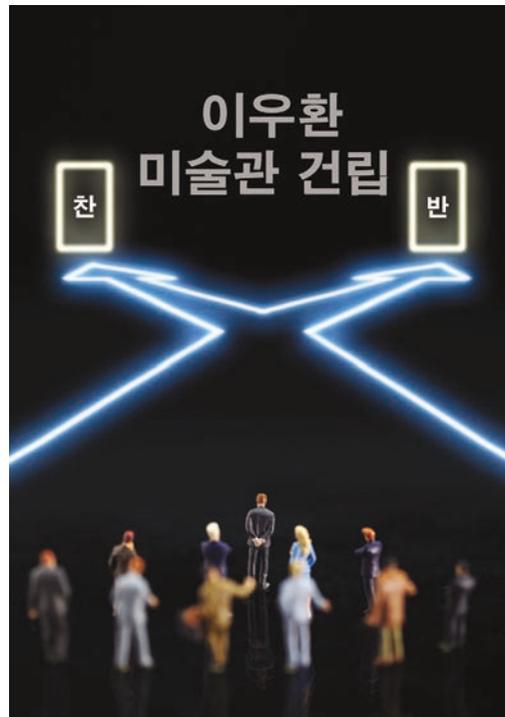
이르면 9월께 사업 추진 여부 결정날 듯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여부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르면 9월께 판기를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화백이 9월 대구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서다. 대구시 역시 이 화백의 미술관 의지를 확인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아울러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이 반대할 경우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달 1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화백을 9월 중 대구로 초청해 지역 언론과 미술인 등을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우환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선 절차적 투명성과 시민 동의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 화백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미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일으킨 모노파는 일본 현대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에서 전시회를 갖는 등 세계적 화가 반열에도 올랐다는 평이다. 올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 금액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화단에서도 영향력이 큰 화가로 조명받고 있다.

배은정 기자



마이핀(My-PIN) 이용자 명암

“개인정보누출사고 막을 수 있다”

“제한적 성과에 그칠 것”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도입된 ‘마이핀(My-PIN)’ 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간 사용돼온 주민등록번호가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반응에 반해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 마이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마이핀 제도 도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 32만개 사이트 중 90% 이상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이핀 제도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카드업체를 비롯해 은행, 이동통신사 등에서 잇달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데 따른 일종의 불안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마이핀은 공공 I-PIN센터 등 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 제도 도입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누출사

고를 차단할 수 있고, 사용법이 간단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이모(43·대구 북구 복현동)씨는 “주요 사이트 이용 때마다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했던 심리적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며 “발급방법도 손쉬워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각에선 제한적 성과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장기간 사용돼온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생활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보다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지적이다.

특히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선 신용정보업체에 가입절차를 거쳐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한 점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자 도입한 마이핀 제도가 되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마이핀 이용자의 서비스 탈퇴 시 모든 자료는 자동 소멸된다”면서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벌여온 일부 중소기업들의 경우 마이핀 제도 시행에 따라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만만찮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배은정 기자

칠곡 군정에 관심있는
전국의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희망 칠곡 정책제안 논문 공모전

1. 대주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의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2. 소주제

- 호국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정책제안
- 첨단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 지역관광 및 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 그 외 칠곡군 미래발전 방안

3. 공모기간 2014년 7월 1일(화) ~ 2014년 10월 30일(화)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응모자격 칠곡 군정에 관심있는 전국의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3인까지 가능)을 구성하여 응모가능

5. 응모방법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여 우편접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 재학증명서 동봉

6. 보낼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7. 논문규격 A4(한글 및 MS Word) 20매 내외로 국문작성 / A4 2매 이내의 요약본 별도작성
(자세한 논문규격은 칠곡군 홈페이지 참조)

8. 발표 및 시상 2014년 11월 중(개별통보 및 칠곡군 홈페이지 게재)

구분	편수	시상내용
대상	1	칠곡군수상,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	2	칠곡군수상, 장학금 100만원
노력상	4	칠곡군수상, 장학금 50만원

9. 심사일정 2014년 11월 중 본선 입상자에 한해 PT발표 기회 제공
(PT발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참가 가산점 부여)

10. 문의처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TEL : (053)766-0038~9



광고닷컴

대구 대표 온라인 광고 전문기업 도약

국내 온라인 마케팅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향토기업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인터넷 마케팅 전문기업 '광고닷컴'. 영속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광고닷컴의 성장 해법과 경영 전략,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살펴본다.

인터넷 마케팅 기반 온라인 광고시장에 새바람

광고닷컴은 검색광고를 비롯해 모바일광고, 배너광고, 지식소핑을 포함한 모바일 및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구 대표 온라인 광고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업체의 사업 영역은 최근들어 온라인광고시장에서 대세로 부상한 바이럴(인터넷)마케팅으로 압축된다. 바이럴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누리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을 통칭한다고 광고닷컴 측은 귀띔했다. 파워블로거에 의한 블로그

마케팅이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셈이다.

광고닷컴에 따르면 광고와 홍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상품 판매확대 등 영속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직결되는 등 사업 성패의 주요 부분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관련 시장 규모 또한 최근들어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고닷컴 측은 창사이래 온라인마케팅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해당 사업의 풍부한 시장성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저비용 기반의 지속적 관리만으로도 고정팬 확보에 योग해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광고 및 홍보에 효과적인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으로도 불리는데,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긍정적 입소문을 발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기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다 기존의 채널로 도달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용의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로컬광고 마케팅 검색 대행사로 성장

광고닷컴은 아울러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지역 로컬광고를 책임지고 있는 등 검색광고 대행사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다음 로컬광고의 경우 월 2억건 가량의 장소검색이 발생하고 있는 등 네티즌들의 접속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광고닷컴 측은 설명했다.

지역검색광고의 경우 다음에서 모바일 최상단에 위치하고 PC 등에서 지도기반의 장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음모바일 지도앱을 통한 노출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로컬광고에 일반인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광고닷컴은 이와 별개로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일 기준 300명 이상의 파워블로거를 확보하고 있



◀장충동 광고닷컴 대표




다는 게 광고닷컴 관계자의 전언이다. 광고주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분야별로 맞춤형 파워블로거들을 선별해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함으로써 광고닷컴의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

체험후기를 포스팅해 블로그를 비롯한 카페, SNS 등에 알리는 체험마케팅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생한 제품 정보를 다른 소비자들을 통해 재생산해낼 수 있는 등 신뢰성 구축에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로그 체험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생생한 콘텐츠를 제공할겠다는 광고닷컴의 차별화 경쟁력으로 진단된다.

광고 홍보방 운영 '눈길'

광고닷컴은 이와 함께 지역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고닷컴은 이를 위해 지역포털사이트 dalseo.com(달서닷컴)을 구축해 지역의 주요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온라인 광고 홍보방도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및 서민들을 돕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년 365일 빠짐없이 광고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광고판' 기능을 맡고 있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광고닷컴은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장충동 광고닷컴 대표는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 경제에 작은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동반 성장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온라인 광고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동시에 고객 밀착형 차별화 온라인광고전문기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글 | 서기대 편집장
사진 | 김원현 기자

군위군청 경제자원과 염 동 균 교통행정담당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을 사랑하는 공직자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스님(一然·1206~89)이 신라·고구려·백제 3국의 유사(遺事)를 모아 지은 역사서다. 고려 중기 학자인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더불어 우리나라 현존 고대 사적(史籍) 중 양대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삼국사기의 경우 여러 사관(史官)에 의해 이뤄진 정사(正史)인데다 그 체재나 문장이 정제(整齊)된 데 반해,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이 혼자서 손수 쓴 이른바 야사(野史)여서 수많은 고대 사료(史料)를 수록하고 있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문헌인 삼국유사를 일연스님은 군위군 인각사에서 저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위군은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불린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을 사랑하며 고향 군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군위군이 고향인 군위군청 경제자원과에서 일하고 있는 염동균 계장이 주인공이다. 염 계장은 군위군에서 태어나 지금껏 군위군에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고향 군위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염 계장은 1991년 공채를 통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군위군 고로면과 군위읍을 거쳐 본청 재무과로 보직을 옮겼다.

2007년부터는 4년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맡을 정도로 군청 내부에서도 청렴하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감사업무를 마친 후에는 기획담당으로 2년간 근무하며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군정기획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판도 듣고 있다. 염 계장은 현재 경제자원과 교통행정담당으로 근무하며 군민들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행정과 관련된 종합 기획조정과 대중교통 요금 및 노선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염동균 계장은 참으로 소박하면서 군위를 진정 사랑하는 공직자로 군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경북도내 군지역 중 예선 거주지를 정주 여건이 편리한 대도시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유입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 계장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고향인 군위군에 거주하며 군위를 사랑하며, 고향 발전을 위해 굶은일을 도맡고 있는 등 모범적 공무원 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공직자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염 계장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어서 쑥스럽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순대 편집위원

안심 파트너! 온:캣!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HD화질로 생생하게!
혼자 있는 어린 자녀, 부모님, 반려동물까지 온:캣으로 지켜주세요.



**24시간 LIVE로 만나는 영상보안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ON:CAT!**

약정 후 무상양도까지!

똑똑하고 실속도 잡는 온:캣 패키지

CCTV+방범보안+안심보험을 결합한 최첨단 영상보안관제시스템, 온:캣!
온:캣 패키지로 불안함도 잡고, 실속도 꼭 잡으세요!



불안을 남겨두지 마세요!

- 100만 화소의 선명한 HD화질
- 적외선 실시간 감시 기능으로 야간감시 가능
- 좌우 350도, 상하 120도의 넓은 감시각도
-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 푸쉬 전송
-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쌍방향 음성 통신
- 실시간 저장 및 스케줄링 가능



세대간 갈등 해소... 국가 경쟁력 수직상승

한국 사회에 세대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연금, 부동산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현안 전반에서 세대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0~30대 젊은층과 60대 이상 고령층 간 세대 갈등이 심화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등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대간 갈등 갈수록 심화

세대간 인식 차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난 7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에 대한 수사당국 발표에 신뢰하는냐는 물음에 20대에선 75%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연령대 층에선 같은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선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세대별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세대간 갈등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분야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때마다 연령대별로 지지 정당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20대층에서 19%에 그친 반면 60대 이상에선 무려 78%에 달했다. 7·30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세대별 평가도 서로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라 장래를 위해 잘된 결과였다'고 답한 20대는 34%에 불과했다. 이 질문에 '잘 된 결과'라고 대답한 60대 이상 응답자는 70%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도 이런 현상은 만연해 있다. 지난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중 20~30대 유권자 비중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현안을 두고도 뚜렷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면 이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은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면 여야를 막론하고 과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가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입증하듯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대선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기초연금 공약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복지정책의 우선권을 둬으로써 20~30대층이 관심을 갖는 보육정책이 후순위에 밀렸다는 불만의 목소리로 비춰진다.

정치권이나 정부도 세대 간 갈등 유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연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연금 정책에 대한 손질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과 관련된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당시와 비교해 점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금 개혁만 두 차례나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당시 급여 수준을 은퇴 전 평균 소득 70%에서 60%로 낮춘데 이어 노무현 정부때는 다시 40%로 줄였다. 국민 연금 가입자에게 받는 납입액도 현젠 월 소득의 9%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대층이 항



후 받게 될 연금액은 자신이 낸 돈의 1.7배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압축성장에 따른 대표적 부작용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는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려 이룩한 경제성장을 불과 40~50년 짧은 기간에 달성하면서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나 현 정부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대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책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구를 두거나 설치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비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의 고속성장을 뒤로 하고 최근들어 저성장 늪에 빠진 것도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령층의 경우 고속성장 경험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이런 경험이 없는 젊은층의 경우 취업난과 복지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반(反) 여당 색채를 띠는 것이다. 진보정당

지지율이 높은 주된 이유로도 풀이된다.

소통 문화정착에 노력해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대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젊은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노력을 보다 많이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젊은층의 국회 진출 문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비례대표에 청년층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선 소통 문화 정착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화의 단절이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다. 세대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소통이 잘 안되다보니 주요 사안을 두고 간극만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세대간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한다”면서 “정부에서도 세대간 갈등을 치유할 수도록 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서용준 편집위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 치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물량인 노후 원전수만 120여기에 달하는 등 풍부한 시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은 오는 2030년이면 5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원전분야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 전국 8개 지자체 경쟁

노후원전해체산업을 견인할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북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원전시설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16년 설계에 들어가 2019년 센터 건립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 유치 의향서를 낸 지역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전남, 전북, 광주, 강원 등 8개 지자체다.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전반 이상의 광역지자체에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유치 의향서를 낸 만큼 향후 치열한 유치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중 경북도의 발 빠른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센터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건 상태다. 경북도는 울진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4개 중수로와 함께 7개 경수로 원전이 들어서는 등 다양한 유형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데다 원전 해체 산업과 연관성이 큰 한국전력기술(주)의 김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는 이와 별개로 최근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과 원전 산업 육성 및 원자력 해체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이들 기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에 나서고 원자력 안전 및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입지 선정을 앞두고 경북지역에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주



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8월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 등 다수의 원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해체기술 개발의 필수 시설인 방폐장과 함께 이를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도 조만간 이전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원전시설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는 뜻이다. 경주시는 이와 함께 현재 경북대에 들어서 있는 차세대 제염해체 원전기반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원자력선진기술연구도 추진중에 있다.

부산, 울산 등도 총력 태세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의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부산시의 경우 현(現) 서병수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만큼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역의 한 대학기관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뛰어든 것은 물론 기장군 장안읍 일원에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과 중입자 가속기수출형 실험연구로건설 등을 앞세워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울산 역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여는 등 공식적 자리에서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

로 유치전을 펼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는 산업특성상 전통적으로 기계 및 조선산업이 발달한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울주군 일원에 조만간 신고리 5·6호기가 차례로 들어서는 데다 원자력 융합 및 에너지 특화산업조성사업에 뛰어든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대, 울산과학기술대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원전해체산업, 미래 성장유망산업 부각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설립 후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끼칠 전망이다.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해체 기술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활용 가치를 지니는 까닭에서다.

원전 시설 표면의 오염물질 제거에서부터 핵폐기물 처리에 이르기 까지 원전 해체 전반에 대한 대규모 연구설비를 갖추고 기술 개발 및 검증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건립에는 국비 1천34억원, 지방비 339억원 등 총사업비 1천473억원이 투입된다.

원전해체산업은 관련시장에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전세계적으로 5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에만 1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은정 기자



대구·경북지역 공기업 및 시·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희비



대구·경북지역 공기업 및 시·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년보다 다소 나아진 반면 대구지역 공기업은 전반적인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최근 도청 제회의실에서 경영평가위원 및 평가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201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덧붙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한 모두 26개 기관단체가 경영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24곳에서 2곳 늘어난 것이다.

이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도체육회,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3곳에 달했다.

A등급은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청소년수련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도문화재단연구원, 경북도생활체육회, 경북장학회 등 총 12곳이었다.

B등급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도장애인체육회, 독도재단, 문화엑스포,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북도청소년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8곳이, C등급은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평가 성적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것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에 나선 동시에 업무선진화 노력이 빛을 발한 때문으로 경북도는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관련 평가에서 출연·출자기관 2곳이 D등급을 받았으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기관에 대해선 고강도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경영개선 노력을 추진해왔다. 경영평가 D등급 시 기관장 연봉을 5% 감액키로 하고 경영 투명성 및 인적 자원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던 게

대표적이다.

도는 이번 평가와 별개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과 시설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하위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지표 개선, 심층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유도하는 등 경영컨설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 혁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구지역 공기업의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위탁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대구지역의 상당수 공기업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도시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은 '나' 등급을 받았으며,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다' 등급에 그쳤다. '가' 등급은 단 한곳도 없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적 저조 기관에 대해선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하는 등 경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일회용 나무?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은 일회용이지만
종이컵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20년을 자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이컵은 한 해에 약 120억개 정도에
13만 2천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나무 4,8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과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마늘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Vs 양파는 증가 한·육우 사육마릿수 증가세로 반전

올해 대구·경북지역 마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생산량은 반대로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면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탓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아울러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소값 안정세에 힘입어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입식을 늘리면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늘 생산량 지난해보다 감소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마늘 생산량은 6만2천551t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976t(12.5%) 감소했다. 마늘 생산량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이 감소한 게 직접적 원인으로 진단된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마늘재배면적은 지난해의 4천737ha에 비해 694ha(14.7%) 줄어든 4천43ha에 그쳤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농산물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지마늘 도매가격은 상품 1kg 기준으로 지난 2012년 4천14원에서 지난해 3천216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지마늘 역시 6천386원에서 26.1%(1천665원) 하락한 4천721원에 그쳤다.

지난해 마늘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일부 농가에서 대체작물 재배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고온은 물론 가뭄과 병충해 발생 증가 탓에 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10a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의 10a당 마늘 생산량은 1천547kg을 기록해 지난해 1천510kg에 비해 2.5%(37kg)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을 살펴



보면 지난해 4천737ha를 기록, 10년 새 가장 많았으며 2010년은 3천248ha로 가장 적었다. 이 기간 생산량 역시 2010년(4만2천60t)과 2013년(7만1천527t)이 각각 최소, 최대를 기록했다.

양파는 생산량 증가

반면 양파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양파생산량은 지난해(18만2천711t)보다 6.4%(1만1천754t) 늘어난 19만4천465t으로 파악됐다.

양파 출하가격은 2012년과 지난해 강세를 보였다. 이에 올해 역시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늘린 게 생산량 증가로 이어진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양파 도매가격(상품 1kg)은 지난 2011년 799원에서 2012년 901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1천307원에 거래됐다. 이 기간 가격 강세에 힘입어 농가소득 또한 10a당 기준으로 2011년 1천902원에서 2012년 2천401원에 이어 지난해 3천78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핸 사정이 달라졌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많아지자 가격 강세 흐

름은 꺾인 상태다.

올해 지역의 양파생산량(19만4천465t)은 최근 10년 새 (2005~2014년) 가장 많은 것이다. 다만 작황은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확시기 고온에 이어 가뭄이 장기화된 데다 병충해 발생까지 늘어난 까닭에서다. 올해 지역의 양파 개당 무게는 228g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보다 8.8%(22g) 감소한 것이다.

한·육우 사육마릿수 증가세로 반전

대구·경북지역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역의 가축 사육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지역의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62만7천마리로 직전 분기인 3월1일보다 2.3%(1만4천마리)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해 소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육감축 정책을 펴면서 전국적으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가격이 안정되자 축산농가에서 다시 입식을 늘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젖소 사육마릿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생산업체 도산 등의 영향으로 농가에서 사육마릿수를 줄인 때문이다. 이 기간 지역의 젖소사육마릿수는 40만마리로, 전분기보다 718마리(1.8%) 감소했다고 동북지방통

계청 측은 밝혔다.

같은 기간 돼지사육마릿수 또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발생한 의성 등의 구제역 여파로 향후 사육두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1일 기준 지역의 돼지사육마릿수는 123만2천마리로, 전분기보다 4천마리(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연말 발생한 가축전염병 탓에 올 초 사육마릿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3월 이후 다시 돼지사육농가에서 사육두수를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추세 흐름은 지난 7월 의성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꺾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축산농가에서 사육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한편 이 기간 대구·경북의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117만3천마리로 전분기보다 37만7천마리(3.1%) 감소했다. AI 발생으로 양계농가에서 사육마릿수를 줄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육계 사육마릿수는 초·중·말복으로 이어지는 여름철 수요 증가를 기대한 농가에서 사육 규모를 늘리면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지역의 육계 사육마릿수는 전분기보다 81만5천마리(9.7%) 늘어난 924만3천마리로 확대됐다.

오리 역시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7만7천마리까지 사육마릿수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은정 기자



한은 기준 금리 인하... 초저금리 시대 진입 속도

한국은행이 지난 8월14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0.25%p 인하함에 따라 은행권의 예·적금 및 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이 15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 등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40조 규모의 재정을 푸는 부양책을 내놓자, 한은 또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시대가 성큼 다가온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는 예금 이자 소득 비중이 높은 노령층 등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의 경우 이자부담 경감에 따라 희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은행권 예·적금 금리 잇달아 인하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당장 은행권의 예·적금 및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에선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예·적금 금리를 종전보다 각각 0.15~0.3%p, 0.1%p씩 인하했으며, 농협은행도 정기적금 금리를 0.3%p 낮췄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예·적금 금리를 인하해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에선 예·적금 금리 추가 인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동금리 상품 가입자 수혜 예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기는 쪽도 있다. 가계 및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여신 주체다. 이 중에서도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한 대출자들이 반기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에 대출금리에 반영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관련 이자 규모가 연 1조8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 478조5천억원, 대기업대출 잔액 171조원, 중소기업 대출 잔액 499조5천억원 등

은행권 대출 1천149조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분의 금리인하 폭(-0.25%p)을 감안해 산출한 것이다.

금융권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의 경우 이자부담 감소액이 1인당 11만4천원, 기업은 95만5천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변동 금리 적용 시 수혜가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은 각각 779만6천301명, 100만2천542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권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출 이자 수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어 들어서다. 여기에는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예·적금 가입 이탈현상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는 눈치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순이자이익은 연간 2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만기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과 부채를 배분한 뒤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빼 산출하는 1년이하 금리갭이 25조7천억원으로 민감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순이자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 1%대 정기예금 상품 출시 임박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또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런 추세라면 연 1%대 정기예금 상품 출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달리 말해 예금 금리 1.0% 시대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대구지역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조만간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추가로 내릴 예정”이라면서 “현 추세라면 금리 1%

대 상품이 줄을 잇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이자 수익이 이처럼 감소하면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예·적금 상품 이탈 현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이용층인 고령자와 서민만이 예·적금 상품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하소연마저 은행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권 이용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예·적금 상품을 대신해 우량 회사채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초저금리시대 도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자들의 경우 예·적금 비중이 높은 탓에 이자소득이 줄어들면서 노후 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보험사 또한 공시이율을 낮추게 되고, 이 경우 보험금은 오르는데 반해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액은 감소하게 돼 해당 상품 가입 비중이 높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여력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령인구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통해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경량 편집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가치

정부가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도입한 동네슈퍼 나들가게가 최근 5년 새 1천곳 이상 폐업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정부의 골목상권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로 비춰진다. 나들가게 지원이 개점 초기에 집중된 반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폐업을 증가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무너진 상도덕 때문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룡자본을 앞세운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진출이 그 만큼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극대화에 있다. 창출된 이익을 재투자해 기업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영속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표준 모델과도 같다. 어찌 보면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무작정 이윤 창출 극대화에만 맞춰선 안 될 것이다. 이에 못잡게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윤 극대화만 쫓지 말고 나눔과 기여의 가치를 철저히 실현해야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요구는 우리사회에서도 못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해서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엔 크나큰 괴리가 존재해 있는 것 같다.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 약자와의 상생(相生), 즉 동반 성장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잇따른 동네상권 진출은 물론 공룡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 입점이 활발하면서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받고 있는 게 현주소다. 1970~80년대 그렇게 많은 동네 빵집이 최근들어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일종의 자본주의 병폐로밖에 볼 수 없다.

듀 프로스트 하버드대 총장은 지난 2008년 하버드대 MBA설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의 세계경제 파탄은 개인의 탐욕과 물질적 보상 추구에서 나온 결과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윤리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도덕성 결여야말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자초한 근원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의 윤리와

가치로는 분명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그 대안과 해답을 동방사상의 뿌리에서 찾으려 한다면 어떨까 한다. 기업경영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도(道)가 있는데 이를 어기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비다운 기업인인 조선시대 유상(儒商)이 품은 상도덕이다. 곧 철저한 건리사의(見利思義)의 원칙에 입각해서다. 우리 사회에선 최근들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 사회적 갈등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의 편중이 가중된 탓이다.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400대 부자 1인당 평균 보유자산만 무려 4천590억 원에 달하고, 이중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만 35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모범적 실천가는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에 나눔 실천으로 굶주린 제주도민을 구한 여성 거상(巨商) 김만덕(1739~1812)의 시대 정신은 최근들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김만덕은 1794년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털어 곡식을 산 뒤 도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굶주림에서 아사자들을 구해 정조로부터 내의원에 속한 여의 가운데 으뜸인 ‘의녀반수’라는 벼슬을 받은 조선을 대표하는 나눔사랑 실천가다. 제주도는 그 정신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1990년 ‘김만덕상’을 제정해 해마다 국내외 여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기념관 건립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만덕이 품은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현대로 따지자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일 것이다. 그 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전 재산 환원을 통해서다. 이 참에 조선 거상 김만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그가 간직한 나눔 사랑 정신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인 모두가 본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득 계층 간 갈등은 손쉽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발행인



201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제43회 안동민속축제

2014. 9.26(금) ~ 10.5(일)
안동탈춤공원



Jumping!
pumping!
Lion

www.maskdance.com



2014.9.26-10.5

영남권 주민 숙원사업 '남부권 신공항' 조성 탄력 국토부, 항공수요 용역조사에서 '필요하다' 결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정부 용역결과가 나왔다.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신공항 조성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 또한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대구·경북과 부산 간 입지 선정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 걸림돌로 판단된다. 정부는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 간 합의에 근거해 입지 타당성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구·경북과 부산 간 어떠한 합의를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다 수도권 등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 움직임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 및 관련 지자체 움직임, 현안 과제 및 향후 전망 등을 진단·점검한다.



영남권 공항 항공수요 지속적 증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은 최근 정부의 항공 수요 예측 용역 조사에서 도출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영남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다. 항공수요가 늘어나 김해공항이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되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선 글로벌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이 국제선 수요예측을, 국내선 수요 예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각각 맡았다.

수요예측 결과, 영남지역 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해공항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항공수요가 연평균 4.7%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항공 수요는 지난해 이용객 967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천1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해공항은 이로 인해 항공수요가 1천 678만 명에 이르는 오는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대구공항의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항공수요가 연평균 5.4%씩 늘어나 오는 2030년이면 지난해(108만 명)의 두 배 이상인 2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용역기관에선 분석했다. 울산·포항·사천공항 또한 2013년 83만 명에서 2030년 103만 명으로 연평균 1.2%씩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는 영남지역 공항의 이용객 증가의 원인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잇따른 진출로 항공요금이 낮아지고 운항편수가 늘어나고 있는 등 항공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남부권 관문 공항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하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에선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25일 국토부의 영남지역 항공수



요조사 결과, 영남권 5개 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구시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성명서 발표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시·도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이어 "정부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이 아닌 남부권 지역 전체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입지에 신공항을 조성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남부권 공히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이날 국토부의 영남지역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입지 타당성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남권,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울산과 경남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밀양' Vs 부산 '가덕도' 평행선

'남부권 신공항을 조성할 경우 항공수요가 풍부하다'는 국토부의 용역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 사회 안팎에선 신공항 조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입지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착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수될 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MB 정부의 남부권 신공항 조성 백지화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시·도간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반응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않다. 입지 선정을 두고 대구·경북과 부산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현재 가덕도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영남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선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최적지란 주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권 주민들이 한 시간 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밀양이 최적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구·경북은 아울러 입지 문제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부산시와 맞서고 있다.

현재 영남권 5개 시·도 중 대구·경북의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도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26일 도정회의실에서 남부권 신공항 필요성과 관련, “정부서 추진하는 남부권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신공항이 아니다”면서 “영남권 5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지역에 조성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결정되면 부산 공항이 되지 동남권 공항이 아니다”면서 “가덕도에 하게 되면 고속도로와 열차 노선을 새로 만드는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상식적으로 물구덩이(가덕도)보다는 맨땅(밀양)이 낫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 가덕도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구·경북과 부산 간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이 같은 파열음 외에도 남부권 신공항 조성을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반대 움직임도 악재로 판단된다.

수도권 여론주도층과 정부 일각에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남부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 확장론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

신공항 조성 시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인천공항 중심의 허브공항 단일화를 통해 공항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 부산은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공존론을 주장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이 조성된다하더라도 김해공항 폐쇄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남부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착수와 관련해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전제로 달고 있다. 만에 하나 5개 시·도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입지 타당성 조사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는 그동안 남부권 신공항 조성과 관련해 총 6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운영기관을 외국기관으로 한다는 합의를 빼고는 다른 사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차로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부권 신공항 조성위해선 정부 역할 중요

신공항 조성을 두고 이해관계 지자체 사이에서 이 처럼 입지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신공항 입지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이 없어 영남지역 5개 시·도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유리한 평가항목에 따라 입지 선정에 결정적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치 양보 없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2011년 MB정부 시절에도 지역 간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신공항 백지화의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부권 신공항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 영남권 5개 시·도 간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야만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면서 “남부권 신공항은 제2관문공항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군위 청정자연을 담은 건강한 우리 농산물

우리 몸을 이롭게, 가족의 건강을 이롭게 -
싱그러운 자연으로 가득 채운 건강한 먹거리, e로운!
군위의 맑은 물과 공기가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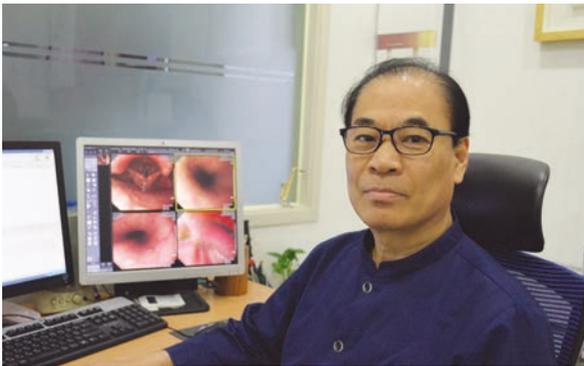


로운®

자연가득, 생명가득

‘몸속 찍는 사진기’ CT & MRI

치료보다는 ‘진단’을 중시하는 요즘, CT나 MRI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일반적인 검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북부검진센터 허정욱 원장(사진)은 “100세 건강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질병의 조기진단이며 건강검진은 질병을 빨리 찾아 내는데 가장 효율적이다. CT와 MRI는 이런 건강검진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CT, 짧은 시간 동안 인체 내부 꼼꼼히 살펴

X선을 빠른 속도로 인체에 통과시켜 횡단면 상을 얻는 CT(Computer Tomography, 전산화 단층촬영)는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데 폭넓게 활용된다. 일반X선 촬영은 앞뒤 여러 영상이 겹쳐 보이지만, CT촬영은 신체의 일정 부위를 절단해서 보는 것처럼 깨끗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재구성하면 3차원 입체 영상을 얻는다.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하므로 몸속 조직 사이의 미세한 밀도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어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뇌, 위, 간, 폐 등 움직이는 장기 검진에 사용되고 두경부위종양, 폐암, 식도암, 간암, 위장관종양, 골종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을 검사한다. 특히 머리 부상이나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척추질환 등 신체 부위의 손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검사 시간은 5분 남짓이지만 실제 촬영시간은 1~2분이면 족하므로, 교통사고나 뇌출혈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MRI, 인체 무해하고 정밀 점검 장점

MRI(Magnetic Resonance Image, 자기공명단층촬영)는 자기를 체내의 수분에 반응시켜 영상을 만들어 몸의 이상을 발견하는 검사다. 조직의 수분 함유량 차이를 통해 각 부위의 구조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MRI는 몸의 횡단면 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의 종단면, 대각선 단면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는다.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뇌질환과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척추질환 진단에 많이 활용되며 무릎과 어깨, 손목, 발목, 팔꿈치 등 관절 이상이나 스포츠 관련 외상 진단에도 사용된다. 사지의 종양, 종격동 질환, 두경부의 염증이나 종양 진단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검사시간이 30~40분이고, 자기의 발신이 시작되면 귓전에 소음이 들려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동안 MRI검사는 암환자로 등록됐거나 뇌혈관 질환 및 역수손상 진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적용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수요가 많은 척추와 관절질환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었다.

저렴하고 보편화된 CT, 어디든 선명한 MRI

그렇다면 CT나 MRI 중 어떤 검사를 선택해 받아야 할까. CT는 MRI에 비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움직이는 장기 검진에 유용해 검사하는 동안 장운동, 호흡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단, X선 발생기가 몸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X선 촬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것은 단점이다. 이에 반해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이므로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장점이다. 인체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CT와 비슷하지만, 인체를 가로로 자른 모양인 횡단면 영상 위주인 CT와는 달리, 환자의 자세 변화 없이 인체의 횡축 방향, 세로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또, CT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등 연부조직을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다만 CT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장운동이나 호흡에 의한 떨림 현상으로 해상도가 낮을 수 있으며 뼈나 석회화된 장기 의 진단에는 CT보다 진단적 가치가 낮을 수 있다.

도움말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북부검진센터 허정욱 원장

매년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는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정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1만5천906명이 죽음을 택했다. 이는 하루에 43.6명, 33분마다 1명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9월에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건 우연이 아닌지도 모른다.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울증이다.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은 가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봄이 되면 진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 혹은 '가을 우울증'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을 탄다고? 우울증일 수 있어요."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기후 변화를 꼽는다.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점점 줄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나 호르몬이 변화해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 속 물질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불균형하고 감정이 불안해진다.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겨, 국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는 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는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놓이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며 흔히 남자가 가을을 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여성들이 더 가을을 탄다. 세로토닌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 가을철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울증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을 우울증 전체 환자의 60~90%가 여성이다. 특히 호르몬 변화를 크게 겪고 있는 40~50대 갱년기 여성은 계절성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다. 흔히 '가을 탄다'는 말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을 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간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귀찮고 만성피로나 집중력 저하, 긴장, 초조감 등이 오래간다면 가을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하루 중 일 누워 있고 싶고 활동량이 줄어든다 보면 무력감과 외로움에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햇볕 아래 산책하며 규칙적으로 생활 하세요."

이처럼 가을 우울증이 시작되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되도록 햇볕아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가을 햇볕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기분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집에만 있는 건 절대 금물. 오히려 야외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맑은 날 산책을 꾸준히 하고, 이왕이면 친구와 함께 걷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이 여의치 않으면 실내에서라도 커튼을 걷어 햇볕은 받도록 한다. 또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을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식욕과 수면욕을 부리기도 한다. 우울한 기분에 많이 먹고, 많이 자서 살이 찌는 원인도 된다. 이 때문에 의식적으로 아침잠을 줄이고 밤에는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음식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비타민 C 섭취량을 늘리는 게 좋다. 특히 우울증 예방에는 비타민 D가 좋다.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통해 얻으므로 일조량이 적은 가을에는 연어나 우유, 달걀노른자, 생선, 간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세로토닌 분비에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6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땅콩, 치즈, 참깨, 두부, 마늘, 현미, 요구르트 등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경북도, 원어민교사 독도 탐방 실시



경북도는 지난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도내 초·중·고교 영어 원어민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에 나섰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동대가 주관한 이번 독도탐방 행사는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신비의 섬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어민 교사 독도탐방 행사는 지난 2009년 처음 실시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독도탐방에는 경북지역 전체 원어민교사 378명 중 지원자를 모집해 최종적으로 60명을 선발, 참여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 60명의 원어민교사는 독도 탐방 외에도 도동-저동해안산책로와 내수전 전망대를 방문하는 등 울릉도의 지질과 자연 생태를 체험하고,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을 견학,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국내외 문헌과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신은숙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이번 체험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외국인 교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면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실시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보내는 등 참가자인 원어민 교사들이 실질적인 독도 홍보대사로 활약했다"고 밝혔다.

안동호·임하호 귀성, 성묘객을 위한 특별수송



안동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1일까지 차량 접근이 어려운 안동호와 임하호 내 귀성 및 성묘(벌초)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공선 특별수송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안동시는 원활한 성묘객 수송을 위해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의무조항이 강화되면서 선박 승선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이 집중되지 않는 평일에 이용토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이 몰리는 공휴일에는 가구당 필수인원(5명 정도)만 신청하고, 부득이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단체나 문중집안 관계자의 경우 가능하면 이용객이 적은 평일에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관공선 이용을 원하는 귀성 및 성묘객은 수운관리사무소에 전화(054-840-6561)로 예약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청이 많을 시 운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귀성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군, 양파 정부 수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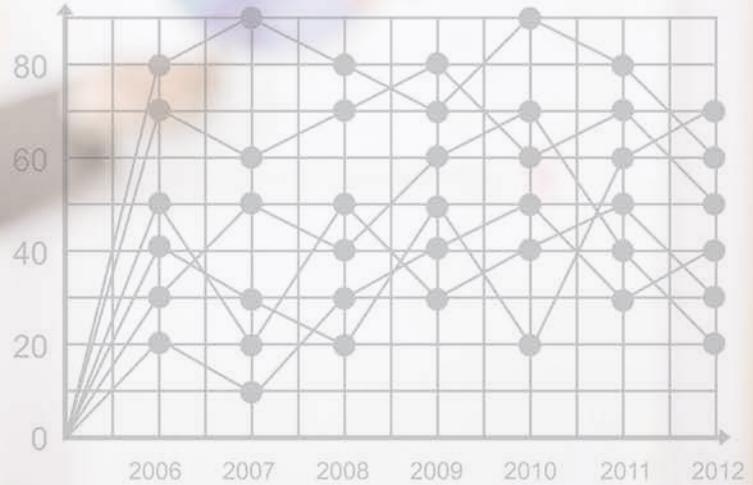


울진군은 양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정부 수매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부 수매에선 군내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희망 수매량을 접수 받아 신청자가 요청한 전량을 수매했다. 이번 정부 수매 결과, 농가 14곳에서 수확한 양파 30t을 kg당 1등급 350원, 2등급 300원선에서 매입했다.

김창열 울진군 친환경농정과정장은 "올해 양파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에 대해 군에서 처음 실시한 정부 수매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FTA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